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반공관들 사림들



Cover Story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기
(사진 _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Contents

기획 | 백제

- 04 백제 위덕왕의 와신상담
- 08 1400년 전 미륵사를 본다
- 12 마음으로 바라 본 궁남지

전시실산책

- 15 외규장각 의궤 전시를 보고

회원마당

- 18 신화 속에 살다
- 21 골호
- 24 천년의 숨으로 호흡한다

인터뷰

- 27 엄마는 박물관이다

학술상

- 30 서일본지역에 있어 湧別기법의 계통

숨은 전시 찾아보기

- 34 낙파 이경윤과 17세기 조선의 회화
-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책을 만들면서..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대여
 왜! 그냥 말없이 가셨나요
 정말 예쁘고 고운 그대여...
 - 수옥을 그리며 (水)

풀벌레가 울고
 가을 꽃이 핀다.
 사람은 가도
 계절은 어김없이
 둥근 추석달이 뜬다.(河)

마음에 담긴
 많은 이야기
 백마강 강물에 흘려보내고...
 그새 바람이 달라졌다.(愛)

박물관을 사랑했던 사람
 맑고 투명했던 사람
 이제 그리움으로만 남은 사람
 잊지않을게요.(리)

'친구는 영혼이 통하는 사이 짧아요.
 우리들처럼 ㅎㅎ~~'
 아! 참 예쁜사람이었는데...
 울컥 또 그리움이다.
 수옥씨, 우리 언제까지나
 친구 맞지요? (정)

백제, 간혀있던 그 찬란한 빛이
 드디어 문을 열고 새어 나온다.
 두팔벌려 마음껏 환영한다.(藝)

원고에 쫓기다 보니
 어느 틈에 벌써,
 가을이다.(延)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11년 9월 15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중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최예정·하영남
 진행 | 서승연
 발행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백제 위덕왕의 와신상담

글 윤선태 _ 동국대학교 교수



백제사에 대한 반성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다. 승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역사만 남기기 때문이다. 후인들도 이런 결과에만 집착하여 패배자의 역사를 흔히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우리 역사에서는 백제가 그렇다. 현행 국사교과서를 보면, 554년 백제 성왕이 신라군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목이 잘리고 3만 명에 가까운 백제군이 희생된 ‘관산성 전투’ 이후 백제의 역사는 전혀 언급이 없다. 곧장의 자왕의 실정과 멸망(660년)으로 치닫는다. 이러한 역사 서술은 백제가 관산성 전투 이후 줄곧 신라에 눌러 지내다 결국 패망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비록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습격에 무너졌지만, 국가존망의 위기의식은 오히려 신라에 팽배해 있었다. 무왕(재위 600~641) 때 군사력에서 신라를 압도하여 운봉고원을 넘어 진주에까지 도달하는 등 남강 전역을 장악해 갔고, 의자왕은 대야성(합천)마저 함락시켜 신라 수도를 코앞까지 위협했다. 관산성의 패배를 말끔히 씻어낸 백제의 과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위덕왕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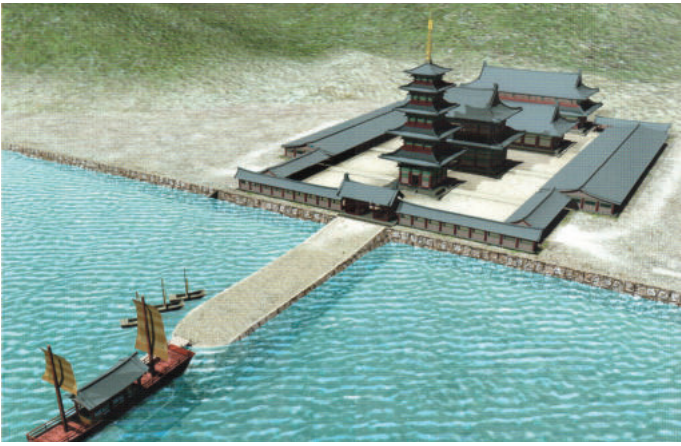
1993년 충남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는 1971년 무령왕릉의 발굴 이래 백제 고고학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백제 금동대향로>가 출토되었다. 이 향로는 꽃봉오리 위에 피어난 신선세계를 용이 입으로 물고 떠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산과 계곡이 겹겹이 솟아오른 이상세계 곳곳에서 기품 있는 신령과 상서로운 짐승들이 어울려 노닐고 있다. 최정상부에는 다섯 명의 악사가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봉황이 막 비상하려는 듯 날개를 펼친 채 일순 멈춰 서 있다. 향로를 보는 이는 누구나 백제 예술의 완벽한 조형미에 감탄사를 터트린다. 이 향로에 이어 절터의 목탑지 사리장치에서는 ‘백제 昌王 13년(567년)에 그의 누이 공주가 발원해 사리를 공양했다’는 銘文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창’은 위덕왕(재위 555~598)의 이름이며, 성왕의 아들이다. 그간 어둠에 묻혀있었던 ‘위덕왕시대’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향로와 사리감이 출토된 이 절터는 백제왕릉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또 위덕왕의 누이가 사

리공양의 주체라는 점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왕실의 願刹로 생각된다. 위덕왕은 오랜 재위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료부족으로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위덕왕은 관산성 패전으로 인해 백제 왕권의 쇠락을 야기한 장본인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덕왕시대의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보면, 이러한 우리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백제 예술의 최고봉 자리를 꿰찬 <백제 금동대향로>의 예술적 성취로 볼 때, 적어도 위덕왕 13년 무렵 백제는 이미 성왕의 戰死라는 국가적 슬픔을 치유하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위덕왕의 슬프면서도 찬란했던 인생을 따라가 보자.

사비천도와 백제·신라의 갈등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한성이 함락(475년)된 후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했지만, 잇달아 왕들이 귀족들에게 피살되는 등 지배구조가 상당히 불안했다. 백제는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남진을 금강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신라는 백제가 약해진 틈을 타고 소백산맥을 넘어와 금강 동쪽까지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도 웅진이 더욱 위태로워졌다. 이미 동성왕(재위 479~501) 때부터 금강 서쪽의 '탄현'에 목책을 세워 신라의 침입에 대비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고구려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는 나제동맹을 깨고 신라와 전면전을 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성왕이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고(538년), 웅진에 북방성, 은진에 동방성이라는 군사적 중진을 촘촘히 배치한 것도 신라에 대비한 것이다. 성왕은 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소위 '任那復興'이라는 기치 하에 가야세력을 후원하고, 이들과 연대하여 신라의 왕경인 경주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선조였던 근초고왕의 가야 경영방식을 계승한 것이다.

이 와중에 고구려가 왕위계승분쟁으로 내분에 휩싸이게 된다. 또 돌궐과 北齊가 등장해 고구려를 압박하면서, 고구려 남쪽 국경의 병력이 축소 약화되기 시작했다. 백제와 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551년 함께 북진했고, 신라는 한강상류 일대를, 백제는 잃어버렸던 한강하류의 '故土' 한성을 되찾게 된다. 이때 성왕의 태자였던 창은 군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항상 선봉에 서서 용감히 싸웠다. 백합야 전투에서는 싸움을 걸어오는 고구려 용사를 직접 대적하여 그의 목을 베고, 창대 끝에 매달아 아군의 사기를 드높였다. 당시 29세로 혈기 넘쳤던 젊은 태자 창에겐 승승장구 무서울 게 없었다. 그러나 백제는 한성 탈환이라는 기쁨에 설레어 방심하고 만다. 이미 갈등의 골이 깊었던 신라가 자신들과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눈치 채지 못했다. 고구려는 돌궐과 북제라는 북쪽 국경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느라 남쪽을 돌볼 틈이 없었다. 나제동맹이 계속 유지된다면 백제의 적극적인 공세로 수도 평양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이에 고구려는 신라와 밀약을 맺고, 신라와 백제의 갈등을 조장해 동맹을 와해시키는 방식을 택한다. 한편 신라는 가야전선에서도 백제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고, 또 고구려 역시 이제 밀약으로 신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553년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하류까지도 급습해 차지하게 된다.



02

태자 창 의 만용과 좌절

동맹국 신라에게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백제 조정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갈라진다. 백제의 가장 큰 약점은 가야전선에서 신라의 중앙 핵심을 전혀 위협할 수 없었던 점이다. 과거 근초고왕의 임나경영은 백제와 가야세력의 호혜에 바탕을 둔 공존공생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신라를 고립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한성을 잃어버린 성왕시대에는 말이 임나부흥이었지, 사실 가야를 직접 장악해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야의 여러 소국은 오히려 백제의 임나부흥을 가야점령으로 받아들였고, 신라를 끌어들이 백제의 진출을 막으려는 세력까지 등장하게 된다.

가야라는 완충지대를 갖고 있는 신라와 사비도성 코앞까지 이미 신라군이 들이닥친 백제와의 싸움은 보지 않아도 백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형국이었다. 백제의 귀족들은 신라의 행동이 꽤 씩씩했지만, '하늘도 함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면전을 택할 수 없었다. 태자 창은 망설이는 귀족들을 '늪은 겁쟁이'로 몰아붙였다. 성왕도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신라의 배신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태자의 선택에 손을 들어주었다. 창은 군사를 이끌고 신라군을 무찌르며 관산성(옥천)까지 진격한다. 짧은 혈기는 '자고 먹는 시간조차도, 행군의 고통도 있으면서' 내달렸다. 그제야 성왕은 적진 깊숙이 들어간 아들의 생사가 걱정되었다. 날랜 군사 50騎만을 이끌고 최전선의 아들을 구하려고 급히 따라붙었지만, 이 정보가 신라군에게 새고 만다. 어이없게도 성왕은 포로로 잡혀 오히려 동맹을 깬 자라는

죄를 덮어쓰고 참수된다. 태자는 활 잘 쓰는 부하의 극적인 도움을 받아 적진에서 구사일생한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현실이었다. 신라군은 목 잘린 성왕의 시신을 보냈고, 성왕의 목은 신라 관청 계단 밑에 묻어 밟고 있다는 저주의 말도 빠트리지 않았다. 태자는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 살아난 자신을, 이 구차한 현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실의에 찬 태자는 신하들에게 자신은 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출가해 스님이 되겠다고 선언한다. 이때 태자를 날카롭게 꾸짖는 한 신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자께서 출가하신다니, 저희들은 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슬픔입니다. 태자로 인해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의 협공 앞에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의 종묘 제사를 도대체 어떤 나라에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라건대 부디 자신의 잘못부터 진정으로 뉘우치십시오. 부왕의 명복을 비는 일이야 다른 승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탄에 섞인 현자의 일갈은 태자의 뺏속 깊이 박혀 자신을 되돌아보는 울림이 되었다. '아! 내가 정말 못났구나. 나로 인해 발생한 이 엄청난 현실을 나 외에 도대체 누구에게 떠넘기려 했던 말인가?' 태자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사적 소임을 알게 되었다. 위덕왕의 즉위는 슬펐지만, 자신이 미래의 백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자리였기에 찬란했다.

위덕왕의 익산 전주 권역 개발

위덕왕의 재기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삼국사기』에는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고려사』 지리지에 위덕왕 원년에 '완산(전주)에 주를 설치하였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이 기사는 신라의 임나 진출을 막으려 했던 정책의 일단으로 볼 수 있어 당대의 전승 자료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즉위 11년(564)에 완산을 폐했다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임나부흥'은 좌절되고 만다. 임나의 멸망으로 익산~전주 권역은 이제 신라와 직접 대치하는 가장 위태로운 변경으로 변모하였다. 위덕왕은 침체된 백제를 혁신하기 위해 익산 권역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백제의 익산 경영은 『삼국유사』의 '서동요' 자료와

연관 지어 무왕대에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봐왔지만,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그 기초가 이미 위덕왕대에 준비되고 있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사비에서 익산으로 ‘遷都’를 하려고 했다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백제사에서 익산 지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곳에는 왕궁리 유적, 제석사지 등 백제 국가와 왕실을 상징하는 건물, 종교 시설이 매우 큰 규모로 건설되었다. 아시아 최대의 사역을 자랑하는 미륵사의 크기가 이를 잘 대변한다. 또 왕궁리 유적에서 최초로 발굴된 아름다운 문양의 돌과 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백제의 정원 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탁월한 조경기술과 미학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백제가 이 지역에 쏟은 공력을 짐작케 한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그 동편 도로로 연결된 ‘제석사지’로 미루어 볼 때 왕의 집무처인 ‘왕궁’으로 건설된 것이 분명하다. 이는 금강 중상류 일대를 북방성, 동방성으로 방어했던 것에 비견되는 조치로서, 익산~전주 권역의 방어를 위해 권력의 중추를 새롭게 이전해 신라에 대응한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또 익산~전주 권역을 배후기지로 잘 활용하면 나제통문을 통한 낙동강 중류로의 진출, 그리고 운봉고원을 넘어 남강, 낙동강 하류로의 진출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후 무왕대에 신라와의 대규모 전투는 이 두 방면에서 전개되었고, 모두 백제 우위로 끝났다. 위덕왕은 아들도 자신보다 먼저 보낸 개인적으로 매우 불행한 인물이었다. 王興寺址에 대한 발굴을 통해 밝혀진 것이지만, 왕흥사는 577년에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세운 사찰이었다. 그러나 ‘왕흥사’라는 사찰 이름이 잘 말해주듯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왕실의 단합과 국가의 흥륭을 고민했던 사람이었다. 어찌 보면 위덕왕은 자신의 사적 슬픔과 고뇌를 극도로 절제했기 때문에 아비를 죽게 한 자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 모른다. 참담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서 나간, 위덕왕의 와신상담을 통해 공과 사가 무엇인지, 오늘날의 公人들도 깨달았으면 한다 !! 🍒

- 01 창왕명 석조사리감, 능산리 절터 출토, 국보 제288호, 국립부여박물관
- 02 왕흥사지 추정 복원도
- 03 왕흥사지 출토 금동사리기, 왕흥사지 목탑지 출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400년 전 미륵사를 본다

미륵사지를 방문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터는 넓은데 무너진 석탑과 당간지주 외에 남아 있는 건축물이 없어 볼 게 없다고 한다. 1992년에 새롭게 복원된 동원 석탑은 국보 제11호 석탑의 모양과 색이 다르고, 탑이 날카롭게 보여 잘못 복원되었다고도 지적한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미륵사지를 복원해서 백제 때 웅장했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 왔던 필자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륵사를 설명하거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글 노기환 _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학예사



01

— 익산 미륵사는 ‘어려서 마를 캐며 살던 맛동이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와 결혼한 후 인심을 얻어 왕(백제 제30대 武王)이 되었고,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 법사를 찾아 가던 중 산 아래 못(池)가에 이르렀을 때 미륵삼존이 출현하여 선화왕비의 발원으로 창건되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정설로 믿어왔다. 그러나 2009년 석탑 보수정비 중 발견된 舍利奉迎記에 ‘…沙毛積德의 딸인 왕후가… 己亥(639)년에 시주한다’라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 미륵사지 석탑에서는 19종 수천여점의 사리장엄이 1400여년의 세월을 건너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사리장엄구들이 석탑의 심주석 1단 상면과 2단 심주석 사이에 회를 발라 밀폐된 곳에 잘 보존되어 있었다. 사리공 내부에는 舍利를 비롯하여 사리호, 사리의 봉안 내력을 새긴 봉안기와 다양한 공양물들이 들어 있었다. 사리장엄이란 탑에 사리를 봉안할 때 넣어두는 사리병과 같은 장식품, 그 내력을 적은 기록, 각종 경전, 불상 등의 물품을 지칭한다. 사리는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져 그만큼 정성이 더해지게 마련이다. 특히 불교가 정신적인 중심이었던 시대의 사리장엄구는 당대의 대표적인 예술품임에 틀림없으며 백제 또한 예외가 아니다. 금석학·역사학·고고학·보존과학·사상사적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미륵사지 사리장엄 몇 점을 소개한다.

— 금동제사리외호는 높이 13cm, 어깨 폭 7.7cm로 넓은 구연 위로 꼭지가 달린 뚜껑과 긴 목 그리고 둥근 어깨를 지닌 胴體가 매우 힘차고 당당한 감을 준다. 뚜껑과 목의 저부에는 연꽃잎을, 동체에는 인동녕쿨무늬와 연화녕쿨무늬로 선각하고 여백에는 魚子紋을 가득 시문하였다. 목 부분의 용기선과 몸체 전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문된 두 줄의 음각선은 녹로 성형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동제사리외호는 동체를 상하로 나누어 아랫부분에 ‘ㄴ’자 형으로 홈을 파고 윗부분에 리벳을 끼워 돌려 맞추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 금제사리내호는 높이 5.9cm, 어깨 폭 2.6cm로 보주형 꼭지가 달린 뚜껑과 긴 목 그리고 둥근 어깨의 동체와 동체부가 상하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 등 전반적으로 외호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외호와 달리 뚜껑과 동체 상부가 일체형이고 금판을 두드려서 만든 단조기법이 보인다. 시문된 문양 역시 연화문과 세잎녕쿨문, 어자문을 배열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호와 유사한 구성이다. 내호에서는 유리제사리병 파편과 사리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미륵사지석탑 사리봉안은 금동제사리외호-금제사리내호-유리제사리병의 3중 구조로 밝혀졌다.



02



03

금제소형판은 폭 1.5cm, 최대길이 8.6cm, 두께 1mm 정도의 손가락 길이만한 얇은 금판 17개가 확인되었다. ‘중부에 사는 덕솔 지수가 금 일량을 보시한다. 中部德率支受施金一兩’, ‘하부에 사는 비치부와 부모처자가 같이 보시한다. 下非致夫及父母妻子(전면) 同布施(후면)’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리봉안 의례를 지내면서 개인이 시주한 내용이다. 특히 中部·下非·德率과 같은 명문은 당시의 행정체제나 관등명을 살펴볼 수 있다.

사리장엄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리봉안기와 사리호 이외에 각종 유리구슬·관식·이식·대금구·족집게 등의 장신구와 은합·동합·금제 소형판·금사의 존재가 눈에 띈다. 이러한 유물의 구성은 부여 능산리사지(566년), 부여 왕흥사지(577년), 경주 황룡사지(643년 무렵) 등 6~7세기 백제와 신라의 사리공양품 구성과 유사하다. 특히 사리내외호의 상·하단 분리제작은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인들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유물 중 하나라 생각된다. 사리봉안기에서 보이는 ‘대왕 폐하’와 ‘왕후’의 명칭 사용은 백제왕권의 강화를 유추할 수 있다. 백제에서는 7세기부터 일반 생활기록에 남조체가 사용되었는데, 금판에 새긴 글씨체는 대부분 기념기록인 북조 필법의 북조체에 해당한다. 금판에서 관직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이름과 가족 전체의 시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왕실 외에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4



사리봉안기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륵사 창건 주체가 『삼국유사』에 기록된 선화공주가 아닌 사택(沙宅)왕후가 된다. 그러나 인각와에 찍힌 간지명의 연대를 보면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인각와 중에는 하나의 원형 테두리 안에 1자·2자·3자·4자가 양각 또는 음각으로 찍혀 있는 9종 316점의 명문들이 있다. 이 명문은 年度를 나타내는 干支銘 또는 干·支銘으로 추정된다. 그 중 壬戌(602년), 乙丑(605년), 丁亥(627년), 己丑

(629년)은 년도를 나타낸다. 丁亥 인각와는 무왕 28년(627년)으로 80점이 출토 되어 간지명 인각와 중 가장 많은 양이며, 己丑은 무왕 30년(629년)으로 44점이 출토 되었다. 간지명 인각와의 비율로 본다면 630년을 전후로 미륵사의 중요 부분이 일차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석탑 기단부 발굴조사에서 중간정도 시기에 해당하는 연자에 주철이 된 연화문 수막새가 발견 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미륵사지 석탑 축조 이전에 주요 목조 건물들이 이미 건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_ 미륵사지가 위치한 미륵산은 해발 430m로 전라북도 서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미륵산은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남쪽에서 보는 모양이 당당하면서도 포근하다.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그간의 발굴과 고증을 통해 만들어진 미륵사 모형이다. 세계의 탑과 세 개의 금당, 회랑 등이 전시되어 있다. 모형을 보고 미륵사 터에서 백제 때 절의 규모를 상상하거나 가능해 본다. 전시관에는 무왕의 미륵사 창건 때부터 조선 중기 폐사 될 때까지 약 1000여년 간의 각종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 창건 당시 미륵사의 웅장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기와류와 鷓尾 등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특수기와로 표면이 청자 같이 푸른색을 띠는 녹유서까래기와가 미륵사지에서만 출토되었다. 기와의 푸른색을 내는 원료로 보이는 납유리도 도가니와 함께 나왔다.

_ 미륵사지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남문·중문·탑이 있는 중심구역이 계단식으로 높게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 위에 미륵사 모형을 1대 1 크기로 올려놓고 바라보거나 연못에 비춰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로 한다. 우뚝 솟은 미륵산과 좌우 능선을 배경으로 지붕 용마루 양쪽 끝에 붉은색의 커다란 치미가 있다. 암·수키와는 검은색 또는 회색을 올리고, 연화문수막새 전면에는 붉은색이 칠해져 있고, 수막새 아래에 녹유서까래기와가 부착되었다면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어떨는지. 특히 중원에 높이 45m 내외의 목탑이 금색 찬란한 상륜과 함께 우뚝 솟아 있고, 동원과 서원의 석탑이 목탑보다는 낮게 조화를 이룬 모습을 상상해보자. 현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미륵사지에서 볼 것이나 느낄 것이 없다 할 수 있을까? 당시 삼국 최대 사찰의 면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05

- 01 미륵사지 전경
- 02 미륵사지 서탑, 해체 전
- 03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기(사리봉안기), 국립문화재연구소
- 04 연화문수막새, 녹유연목와, 연화문수막새,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 05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기(금동제사리외호 부분), 국립문화재연구소
- 06 미륵사지 가람 모형



06

마음으로 바라 본 궁남지

宮南池[사적 제135호]는 아침 안개가 살포시 내려앉을 때 찾아야 그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팔월의 강렬한 태양 아래 찾는다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조금 걱정스러웠다. 여건이 이렇다면 대신 마음의 눈으로 깊이 있게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스에 몸을 실었다.

글 조애경 _ 편집회원



_ 부여터미널에 내려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발걸음을 재촉한지 10여분 만에 궁남지에 도착했다. 무더위를 비웃듯 낭창낭창 가냘픈 몸짓을 하는 버드나무가 둥그런 연못가에 한가로이 즐지어 서 있다. 버드나무와 작은 섬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진 抱龍亭과 다리, 이것이 궁남지의 전부이다. 단출함을 넘어 이곳을 처음 찾는 이는 초라함마저 느끼지 않을까. 궁남지는 백제 무왕 35년 사비도성 안에 조성된 인공연못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 연못 가운데 최초의 宮苑池이다. 연못 동쪽에서 초석과 기와편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백제 정궁의 남쪽에 조성하였다는 離宮터로 추정된다. 원래는 3만여 평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하나, 1965년 복원하면서 지금은 옛 연못의 1/3크기도 안되게 줄어들었다. 정자와 목조다리 역시 그 후에 세운 것이니, 원래의 모습을 짐작해 보기는 쉽지 않다.

_ 『삼국사기』 백제 본기 무왕조에 '궁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리나 되는 긴 수로를 이용해 물을 끌어들이며 물가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연못 가운데 섬을 만들어 方丈仙山을 모방하였다'고 전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동쪽바다 가운데 신선이 사는 세 개의 섬인 蓬萊, 方丈, 瀛州의 三神山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정원 연못에 이 섬들을 조성해 불로장생을 기원했고, 궁남지의 섬에도 이런 염원을 담았을 것이다. 작은 섬에서 실제로 토기와 기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삼국사기』에 '무왕 39년 3월에 왕은 비빈과 더불어 큰 연못에 배를 띄우고 놀았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은 버드나무 가지에 가려진 황포돛배 한 척



01

01 궁남지 전경
02 연화문 전, 궁남지 출토, 국립부여박물관



이 숨을 죽인 듯 놓여 있다. 역사적 사실을 뒤로 하고 오히려 적막함만을 더해 준다. 울 여
름 잦은 비로 연못은 깊이를 더하여 버드나무의 밑동마저 찰랑이는 물에 잠겨 있다. 사비인
들이 꾸던 꿈과 기원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저 연못 속에 녹아 잠겨 있는 것은 아닌지.

— 궁남지에는 무왕의 출생에 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삼국유사』에 '무왕의 이
름은 璋이다. 그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남쪽 못가에 살다가 연못의 용과 정을 나눠 장을 낳
았다. 아이 때 이름이 서동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기록과 비교해 보면 본인이
명하여 만든 연못에서 자신이 태어나는 웃지 못할 모순이 너무도 쉽사리 드러난다. 또한 같
은 이야기가 익산 馬龍池에도 전해진다. 그저 전설은 전설일 뿐,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
는 것일까. 사실 여부를 떠나 왕의 출생에 神異性을 부여하고 싶었던 그들의 순박하리만큼
훗훗한 마음에 더 가치를 두고 싶다.



02

— 말없이 연못가를 걸었다. 초라하게 느껴졌던 첫인상은 어느새 사라지고 조용한 자
연 속에서 사비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이런 것이 바로 백제만의 미적 여운인가! 사실 궁
남지를 대하면서 경주 안압지와 비교가 되었다. 잘 다듬어진 석축과 크고 화려한 전각들, 깔
끔한 잔디로 덮여 있는 건물터, 두 곳의 모습이 어찌면 이리도 상반되는지. 안압지가 마치 화
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미인을 연상케 한다면 궁남지는 소박한 일상복을 입은 촌부와 같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왠지 모를 허전함을 채워주는 것이 있다. 연못 주위를 에워싼 드넓은 연밭이다. 쟁반에 옥구슬이 또르르 구른다 했던가. 싱그럽게 물 오른 연잎 위에 물방울들이 진주보다 영롱하게 빛난다. 고결함의 상징인 연꽃들이 淸雅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말이 연꽃을 표현하는데 제격인 듯하다. 연밭도 예전에는 궁남지와 하나였을 것 같은데 무심한 후손들에 의해 가르고 덮여져 이런 모습이 되었나 싶다. 불심 깊던 백제 사비인들은 분명 궁남지를 아름다운 연꽃으로 수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지금 바라보는 눈길에 애뜻함이 더했다. 연밭 가운데 놓여진 커다란 징검다리를 거닐며 우리는 잠시 천상의 선녀가 되어 본다. 동행들의 두 뺨이 꽃잎처럼 볼그레한 분홍빛으로 물든다.

崔南善은 삼국의 도읍이던 평양·경주와 비교하여 부여를 다음과 같이 논했다. '...평양과 같은 큰 시가를 보지 못하고 경주와 같은 풍부한 유물들을 대할 수 없음이 부여를 더욱 쓸쓸히 느끼게 합니다. 다만 부여의 지형으로부터 백제의 전역사를 연결하는 갖가지 사실 전체가 한 덩어리의 쓸쓸함, 곧 적막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에 비추임을 양탈할 수 없습니다. 사탕은 달 것이요, 소금은 짠 것이요, 역사의 자취는 쓸쓸할 것이라고 값을 정한다면 이런 의미에서 고적다운 고적은 아마도 우리 부여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최근 발굴조사 결과 궁남지의 위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오늘 보고 느낀 것은 모두 한여름 밤의 꿈이었다. 멸망 후에 파괴되어 제자리마저 찾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가슴이 더욱 아려온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던 의미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춧돌만이 남아 있는 폐허에서도 우리는 많은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를 캐내고 있다. 길고 긴 인연의 끈처럼 그들은 우리에게 풀어야 할 과제를 던져 주었다. 그 입지가 작아지고 쓸쓸함만이 남아 있다 해도 마음으로 들여다보니 오늘의 궁남지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참으로 많았다. 🍁



외규장각 의궤 전시를 보고

일찍이 규장각에서 의궤를 여러 번 본 터라, 이번 전시회는 나에게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막상 전시실 안에 들어서니 145년 만에 돌아 왔다가, 御覽用을 대한다는 선입견 때문인지 몰라도, 한눈에 과연 명품 문화재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조선의 문화유산 중에 왕조실록과 궁중의궤가 기록문화의 精華라는 주장이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에도 있음을 실감케 한다. 더구나 기록 문화 중에 제책기법은 당대의 정신문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금할 수 없었다. 그것들이 신성하고 존귀한 왕실의 것으로 빼앗겼던 것을 찾아 왔다는, 민족정신이 깃들었다는 상투적인 의미는 차라리 뒷전이다.

글 류건집_ 회원

어람용 의궤의 확실한 제지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좋은 안료에 고급 품질의 종이인 草注紙를 사용하였다. 分上用이 3개의 시우쇠뿔으로 묶은 데 비해, 宧쇠로 邊鐵을 대고 5개의 菊花瓣을 받쳤으며 朴乙釘으로 고정시켜 책을

만들었다. 목판에서 찍어내지 않고 테두리인 匡郭과 행간을 구분하는 界線을 직접 *朱絲欄으로 그었기 때문에, 중간에 접는 板心에 고기 꼬리 모양의 魚尾가 없어 미끈하다. 사실 어미는 1674년에 만든 〈仁宣王后殯殿都監儀軌〉 이외의 어람용에는 없고, 분상용에는 *花紋黑魚尾가 계속 찍혀왔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이후에는 어람용에도 *花紋赤魚尾가 보인다. 표지의 장정은 분상용이 주로 붉은 삼베를 바르고 그 위에 *標題를 바로 쓰고 옆에 年紀와 사고명을 적었다. 그에 비해 어람용은 상서로운 雲紋·寶紋·卍字紋·연화문·봉황문 등의 무늬가 있는 녹색 비단을 주로 쓰고, 표제도 따로 써서 붙인 것 등 보기만 해도 귀태 흐르는 외형이다. 거기에 당대 제일의 달필가인 書寫가 온 정성을 다해 쓰고 화공들이 그려서, 자획이 살아 있고 그림에는 생기가 도는 筆寫의 *稿本이다. 이제 막 만들어 내놓은 듯한 선명함이 돋보인다. 사람으로 보면 팔등신의 美丈夫를 대하는 느낌이다.

분상용에는 行草의 글자도 더러 섞인데 비해, 어람용은 楷書로 여유 있는 간격을 두고 자획도 흐트러짐이 없다. 내용도 존경해야 할 종묘, 祖宗, 세종대왕, 왕대비 등의 인물이나 사물은 반드시 행의 머리에 오도록 줄을 바꾸어 썼다. 이는 지금도 私家의 제문에 祖先을 지칭하는 말은 줄을 바꾸어 위로 올려 쓰는 것과 같다. 班次圖의 내용도 안료뿐만 아니라 輦(가마)의 修飾이 더 장엄하고 人馬의 묘사가 훨씬 입체적 생동감이 들도록 그렸다. 이는 畫匠이 정성을 다해 한 획도 허술하게 다루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람용을 제작한 장인들의 기량이 한 층 더 높았음을 짐작케 한다.

이 기록들의 생성 당시에는 궁중의 일이 바로 나라의 일이었으니, 어떤 행사 일정이 잡히면 우선 도감이 설치되었다. 정승으로 都提調를 삼고 3~4명의 提調

는 판서들로 하였으며, 都廳과 郎廳으로부터 아래로 刻手·多繪匠·목수·소목장에 이르기까지 담당자를 정하고, 많은 관료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행사를 무사히 치르게 된다. 그리고 그 행사의 모든 과정을 의식궤범 곧 의궤로 남겼다. 15세기부터 만들어진 의궤는 18세기에 오면 절정을 이루어 어람용과 분상용으로 구분되었다. 그 내용들은 먼저 의식에 대한 논의과정, 책임을 맡은 관원과 장인들, 진행과정, 비용, 의식 도구들, 의궤편찬 과정과 포상 내역 등이다. 그 중에도 훗날 사고에 배치할 분상용이 아닌 왕의 서고에 비치하는 어람용은 특별히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가의 권위나 왕실의 존엄성 때문이었다. 전국에서 엄선된 제지공들이 평생의 공력을 쏟아 밤잠 설치며 최고 품질의 종이를 만든다. 제책공이나 書寫, 書吏는 물론 도감에 종사한 전원이 가문의 영광과 개인의 명예를 걸고, 온 정성을 다해 가슴 졸이며 탄생시킨 유일한 서책들이다. 이런 것이 남의 나라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유독 사학자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갈구하여 염원하던 것이니, 생각하면 흐뭇하기 이를 데 없다. 흡사 생사를 모르던 長子の 귀환이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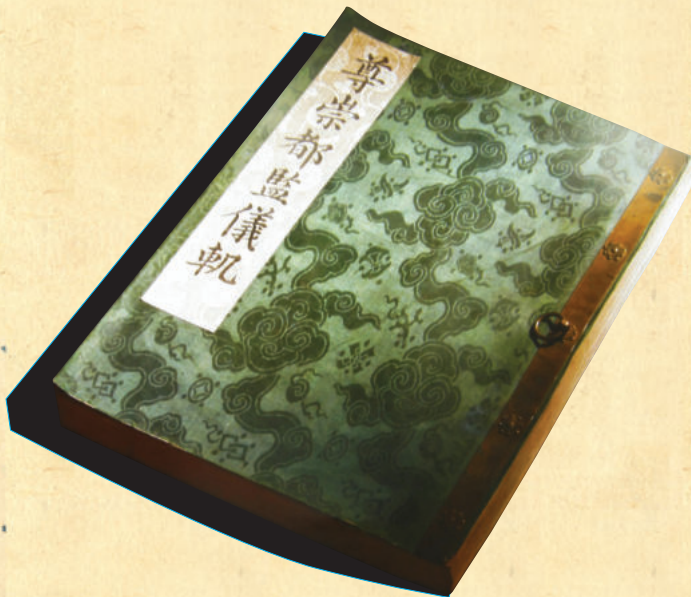
하지만 그 때 탈취된 유물 350여점 중, 서책과 玉冊, 지도 등 50여점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다. 한편 물러나 생각해 보면, 역사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얽혀진다는 것을 느꼈다. 만약 1886년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 군들이 '유물을 하나도 탈취하지 않고 모두 불태워 버렸다' 하는 생각과, 반대로 '5000여점의 유물을 모두 가져갔더라면', 혹은 '전부 그대로 두고 떠났더라면' 하는 가정을 해 본다. 만약 마지막 경우였다면 지금까지 그 유물들이 우리 눈앞에 꼭 존재하리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역사적 유물들을 좀 더 잘 보관하려다 뜻

하는 바와는 달리 망실된 사례를 비일비재하게 보았다. 한국동란 때 부산으로 피난 가면서 조선 역대 왕의 어진들을 가지고 갔다가 몽땅 소실해 버린 일이나, 지방 사고에 사서를 보관했다가 그 사고 전체가 화재로 灰燼 되면서 한 권도 구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다른 나라에 반출되었다가 훗날 빛을 보는 것도 많았다. 유물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이론과 달리 예측불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이런 생각은 유물보존의 일부 현실만을 본 것이지, 힘에 의한 불법 반출을 두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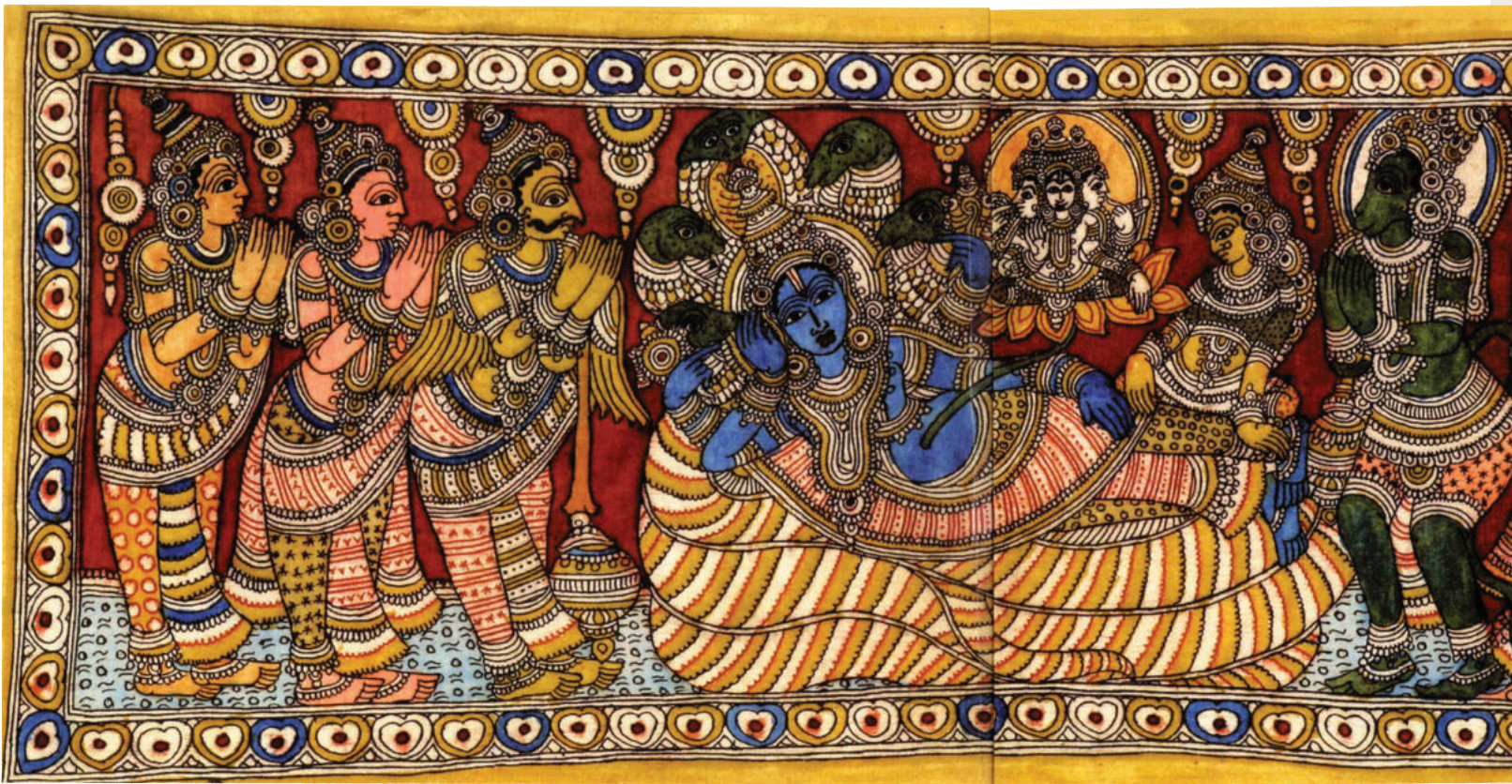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의미는 그것들이 의궤라는 데 있다. 편리위주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작 조상들의 의례에 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박제품

으로 취급하거나, 먼 나라 다른 부족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기 쉽다. 더구나 그 내용이 왕가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지난날 궁에서 쓰던 것이라면 앞다투어 가지고 싶어 하고 또 먹고 싶어 하면서, 왜 예절은 남의 것처럼 멀리하는지 이상하다. 잘못 생각하면 궁중의례란 외형만 호화롭게 갖추려고 한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의 절차는 마음에 바탕을 두었고, 또 국가의 위신도 지키려고 하였다.

공자도 『논어』에서 의례란 마음에 달린 것이지 호화로움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禮其與奢也寧儉, 喪與易也寧戚; 예란 사치한 것 보다 검박한 것이 차라리 좋고, 장사 지내는 일은 정해진 격식보다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의례란 안 치르면 모르되 치르려면 엄숙해야 하고, 안 차리면 모르되 차리려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요즈음 들어 우리는 의례의 기본이 되는 외형과 마음도 모를 뿐 아니라, 정성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듯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럴 때 조상들의 典法의 표본이었던 의궤 전시를 보고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도 뜻있는 일이다. 🍷



註 * 朱絲欄; 붉은 실 같은 선
 * 花紋黑魚尾, 花紋赤魚尾; 꽃무늬가 놓인 검은 색 어미와 붉은 색 어미.
 * 標題; 겉표지 위에 붙이는 책의 제목.
 * 稿本; 문장을 직접 만들어 쓴 본이라는 말 [寫本의 상대어]



신화 속에 살다

연일 이어지는 비로 온 천지가 눅눅하고 무거울 때,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색전시 하나가 마음을 붙잡는다. '인도로 떠나는 신화여행'으로 다문화 특별전이다. 입구의 불꽃모양 아치 앞에서, 나는 이제 막 새로운 세계에 도착한 시간 여행자가 된다. 살짝 설레기까지 한다. 익숙한 서양의 신화와는 또 다른 신들의 이야기가 잠자던 상상력을 깨운다.

글 정미희 _ 회원

아주 오랜 옛날
 우주는 캄캄한 어둠에 싸여 있었다.
 그 속에서 스스로도 억누를 수 없는 기운으로 존재한 신이 있었다. ... 종락
 그가 스스로 빛을 드러내고는
 우주 만물을 만들고자
 자신의 몸에서 물을 만들고 씨앗 하나를 그 속에 넣었다.
 이 씨앗이 황금알이 되어 태양처럼 빛나자
 그 속에서 그 자신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 브라마로 태어났다.



01

창조의 신 브라마의 탄생신화이다.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신화 속에서는 먼저 우주의 근원인 물을 만들어낸다. 물을 신성시하는 인도인의 태도가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리라. 황금알 속에서 눈을 뜬 브라마는 만물을 하나씩 창조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비슈누의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오르고 거기서 브라마가 태어났다고 한다. 그림 속 파란 빛깔의 비슈누는 머리가 다섯 개인 거대한 뱀 아난타 위에 누워있다. 아난타는 무한한 시간을 의미한다. 연꽃 봉우리에는 브라마의 세 개의 얼굴이 보인다. 원숭이 신 하누만, 인드라 등 신들의 경배가 이어진다. 비스듬히 누워있는 비슈누는 완벽하게 할 일을 끝낸 듯 여유로운 표정이다.

인도신화는 보통 베다신화와 힌두교신화로 나뉜다. 태양의 신 수리아, 비의 신 인드라, 불의 신 아그니 등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신격화하였다. 『베다』의 다신교 신앙은 여러 변화를 거쳐 힌두교 신앙으로 성장한다. 인도신화의 특징 중 하나는 추상개념의 신격화이다. 추상의 신 '브라흐만'은 설명 불가한 우주의 궁극원리이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힌두교도들은 신은 하나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이라고 말한다. 힌두교의 三神은 창조의 신 브라마, 보호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이다. 이 삼신과 관계되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파생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

'아바타'라는 영화도 있지만 산스크리트어로 아바타르는 化身을 뜻한다.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바타 사상은 비슈누와 시바 그리고 주요 여신들과 관련되어 있다. 지상의 진리와 질서가 오염되거나 쇠퇴될 때 인류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한다. 가장 많은 아바타를 가지고 있는 신은 비슈누이다. 물고기 마츠야, 뱀뱀지 바라하, 왕자 라마 등으로 맹활약했다. 어쩌면 그 노력으로 현재 가장 사랑받는 신이 되지 않았을까. 부처는 비슈누의 아홉 번째 아바타이다.



02

신화여행 중 파괴와 재생의 신인 시바에게 자꾸 눈길이 갔다. 세상 어떤 신이 이렇게 관능적일까! 특히 춤추는 시바 나타라자는 아주 매력적이다. 한쪽 발로 중심을 잡고, 다른 발을 튀어 오르듯 들어 올린 모습은 우리 탈춤의 춤사위와 닮아 있다. 탈춤에서 강인한 남성적 힘이 느껴진다면, 시바의 춤은 손끝의 섬세함이 전해질 듯 부드럽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시바의 발밑엔 제압당한 난쟁이 악마가 버둥대고 있다. 이 악마는 맹목적인 삶과 인간의 무지에 대한 상징이다. 시바는 발끝에 힘을 주고 머리카락이 휘날리도록 역동적인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다. 북의 장단은 점점 빨라지고, 급기야 그의 팔을 휘감고 있던 코브라도 춤을 춘다.

- 01 브라마의 탄생
- 02 춤의왕, 시바 나타라자
- 03 시바와 파르바티
- 04 가네샤
- 05 태양신 수리아



03



04



05

인도인에게 시바가 사랑받는 이유는 가장 천한 사람과 스스럼없이 사귀며, 나쁜 것에 대해 철저히 벌하고, 자기를 신봉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베풀기 때문이다. 철저한 요가 수행자였던 그에게 여인들이 많이 따랐지만 한눈을 판적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인도 여성들이 시바를 좋아하는 것일까? 시바라는 이름에는 ‘吉하다’는 뜻이 들어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인도실의 시바 조각상은 또 다른 느낌이다. 여백을 꽉 채워 그려 넣는 세밀화처럼 빈틈없이 조각되어 있다. 충성스런 황소 난디를 타고 있는 시바와 그의 아내 파르바티는 다정함을 넘어 에로틱해 보인다. 금슬로는 단연 최고라니 그럴 만도 하다. 남편의 어깨에 매달릴 듯 팔을 두르자 아내의 허리를 감싼 그의 손이 바싹 당겨진다. 살포시 눈을 감는 그녀를 그윽하게 내려다본다.

기단 양쪽에 시바와 파르바티의 두 아들 가네샤와 카르티케야가 앉아있다. 전쟁의 신으로 불린 카르티케야는 꽃미남에 능력이 뛰어난데 반해 가네샤는 코끼리 머리에 똥똥하다. 물론 가네샤가 처음부터 코끼리 머리였던 것은 아니었다. 파르바티는 남편의 오랜 부재중에 먼지와 흙으로 잘생긴 아들을 만들었다. 돌아온 아버지를 아들은 몰라봤고, 집안으로 극구 못 들어오게 하자 조급한 마음에 불을 쏘아 머리가 없어진 것이다. 파르바티는 아들을 되살려놓으라고 울부짖었다. 자식이 해를 입자 여신의 신성은 사라지고 보통의 엄마처럼 분노로 이글거린다. 찢찢매던 시바는 우여곡절 끝에 아기 코끼리 머리를 잘라 아들에게 붙여주었고, 부와 명예 그리고 지혜의 신 가네샤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가네샤를 자세히 보면 상아 한쪽이 부러져 있다. 현자의 시를 받아 적기 위해 그것으로 상아 펜을 만든 것이다. 이때 탄생한 아름다운 시는 바로 인도의 위대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마하바라타』이다.

인도신화에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다. 인도인들은 신화를 굳게 믿고 있으며 신화 속에서 산다. 신화가 삶이고 삶이 신화이다. 그들의 신은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다. 끊임없는 고행을 통하여 역경을 헤쳐 나가는 신들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고, 더 다가가게 했으리라. 그것이 완벽한 신이 아님에도 그들이 열렬히 사랑하는 이유는 아닐는지. 신화여행에서 돌아오는데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아! 이 또한 태양신 수리아의 짙은 축복이겠지. 🌞



骨 壺

1966년 5월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 359점이 돌아왔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11달만이였다. 한일회담은 과정 내내 '졸속' '굴욕외교'라는 논란 속에 진행되었지만, 문화재반환 협상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정부는 문화재 반환도 '한일국교 정상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증여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글 우종근 _ 회원



01

_이 때문에 몇 만점이 될지도 모를 민간인 소장품은 아예 반환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또 '일본에서 한국문화를 연구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되돌려 준다'는 기준을 내세워 내놓고 싶지 않은 것은 다 빼돌렸다. 뺏긴 빼고 감출 건 감춘 끝에 일본이 돌려준 문화재에 대해 국내의 식자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우거지가 대부분'이라고 혹평한 것은 당연지사이다. 실제로 1년 후 반환문화재 359점 중에서 국보로 지정 된 것은 2점, 보물은 5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문화재 반환의 실상을 잘 말해 주는 것이다. 돌아온 문화재 면면이 이처럼 허탈한 지경이었지만 '약탈문화재를 반환받으러 갔던 전문가들이 께재를 불렀다'는 신라토기 한 점이 있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대표적인 반환문화재로 사랑받는 국보 제 125호 「綠釉骨壺(附石製外函)」이다.



02



03

—二四호 한송寺 석조보살좌상과 함께 韓日協定직후 日本서 되돌려받은 것. 火葬法이 유행했던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高僧이나 귀족의 타고남은 뼈를 갈아 담아놓는 이 骨壺가 심심치않게 눈에 띄긴 하지만 녹유골호처럼 소담스러운 圓滿味를 갖춘 施釉壺는 드물다. (중략) 별다른 기교없이 무던하게 둥글린 壺의 뚜껑과 바탕의 안팎 전면에 深靑색 釉藥을 입혔고 印花紋과 瓊瑤紋을 호사스럽게 장식했다. 높이 十六cm 口徑 十五.三cm의 원만한 脙과 線은 말하자면 韓國的인 소박한 풍토양식을 일찌기 신라인들이 정착시켰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골호를 담고있는 화장암外函 역시 한개의 타원형 공을 반으로 잘라 도로 맞추어놓은 듯 빈틈없는 안정미를 갖추고 있다. 이 녹유골호는 日本 河出書房이 발간한 「世界陶磁全集」 韓國上代編에도 권두에 원색사진으로 나와있는 정도로 日本人들이 손꼽던 작품. 日本 敗亡 직전 서울의 日人 골동품수집가 「이도」(伊東愼雄)씨가 慶州 근처에서 실어내다 東京의 廣田熙라는 고미술상을 거쳐 東京國立博物館에 수장시켰다는 경력을 갖고 있다. 지금은 이 外函과 함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소박하고 安定感있는 新羅土器—國寶巡禮 5」 동아일보 1972년 2월 8일)

— 이 골호는 돌함과 나란히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중이다. 다만 「뼈단지」라는 새 이름표가 붙었다. 얼마 전 전시유물의 이름을 모두 우리말로 바꾼다는 정책에 따라 새로 얻은 이름이다. 골호의 예쁘장한 생김새만큼이나 그 이름이 여간 양증맞은 게 아니다. 이 골호에는 죽음의 거무튀튀한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고, 내 님이 먼 길 떠나며 남겨준 정표를 야밤에 몰래 꺼내보는 듯한 정감이 넘친다.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죽음이 이렇게도 푸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속삭인다. 서양에서 말하듯 철학의 소명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있다면, 이 골호가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철학교과서 몇 권을 공들여 읽은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 동아시아에서는 원래 화장과 골호가 exotic한 문화였다. 공식 장례문화는 ‘죽으면 반드시 땅으로 돌아간다 (衆生必死, 死必歸土)’는 정신에 따라 시신을 땅에 묻는 土葬이었다. 고대 중국의 생사관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혼은 하늘로 날아 올라가면 그만이지만, 육체에 머무는 혼은 시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잘 대접하지 않으면 산자에게 해코지를 한다. 그래서 시신이 잘 보존되도록 봉분을 크게 하고 귀중품을 함께 묻는 厚葬을 중요한 덕목으로 쳤다. 반면 시신을 불에 태우는 ‘焚尸’는 직설적인 어법처럼 대단히 가혹하고 패륜적인 행위로 간주했다. 군대가 적국을 점령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破墓焚尸였고, 반역자를 ‘焚如之刑’으로 다스린 것도 이 때문이다.

— 後漢 明帝가 불교에 귀의하고 낙양에 절을 지은 후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인들은 죽은 제 몸을 거리낌 없이 분사하는 승려의 습속에서 곧 그 허허로움과 간편한 측면을 주목하였다. 오래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정신도 滅하는 것, 따라서 과도한 후장은 넌센스’라는 神滅論이 퍼지기 시작했다. 唐末 이후 분시는 일반화되었다. 대중은 번잡하다며 토장 대신 분시를 선호했고, 권력은 줄곧 전통윤리를 내세워 이를 금압했다. 나랏돈으로 공동묘지를 사서 토장을 장려한 지방관을 황제가 표창할 정도였다. 불교에 반대하는 신유학 사상가 朱熹가 『朱子家禮』를 서둘러 편찬한 것도 실은 불교의 화장법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토장을 國是로 하자는 의도였다. 분시는 明代에 와서야 火葬이란 용어로 불렸다.

— 토장과 화장의 긴 투쟁사는 淸의 6대 황제 乾隆帝에 와서 토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중국문화에 심취한 황제는 강력한 동화정책을 펴고 본래 화장을 기본으로 했던 만주족에게까지 화장을 금지시켰다. 중국토장의 승리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자 미야자키(宮崎市政)는 재미있는 해석을 했다.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新儒敎의 토장법이 세계주의적인 불교의 화장법을 몰아내버린 것은 역사가 반드시 합리적인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中國火葬考』 1961)

— 과연 화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난 100년새 중국의 화장율은 대도시의 경우 95%를 넘고 영국은 70%, 일본은 90%를 넘었다. 한국도 최근 65%나 된다고 한다. 토지 부족과 숲을 보호하자는 것이 이유라지만, 역시 화장의 합리성을 폄지 않을 수 없다. 화장을 종지로 삼는 불교는 죽음을 ‘헌옷을 벗고 새옷을 입는다’고 말하고, 유대교는 ‘세상은 다리(bridge)’라며 이생의 집착을 경계한다. 세상살이를 ‘강 건너기(渡世)’에 빗대는 榮根譚에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버려라’는 부처의 가르침을 오버랩해도 어색하지 않다. 중국의 성인 大禹가 ‘인생은 여관, 죽음은 돌아가는 것(生寄也, 死歸也)’이라고 한 것이나, 영어권에서 ‘die’의 고상한 표현인 ‘pass away’, 우리말의 ‘돌아가다’가 공통적으로 깔고 있는 정서가 바로 화장의 허허로움과 간편함에 매치되는 것이 아닐까?

— 화장은 골호 하나로 남는다. 물론 고려 許載의 석관처럼 화려한 경우도 있지만, 토장에 비하면 규모나 치장 모든 면에서 골호는 차별이 없고 민주적이다. 覺者임을 증명하는 승려의 사리함과 달리 금·은·유리로 만든 골호는 아직 못 봤다. 흙으로 빚어 낮은 온도에서 구워낸 도기가 보통이고 녹유골호처럼 멋을 낸들, 그것은 이생에 함께 살았음을 기억하는 산자들을 위한 기념으로 정성을 다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 01 녹유골호, 국보 제125호, 국립중앙박물관
- 02 인도 화장터
- 03 다비식 장면



천년의 숨으로 호흡한다.

글 정용채 _ 회원

들이쉬는 이 숨은
오천년을 숨고르기 한 숨
앞섰을 타고 흐르는 그 선은
천년에 마름질로 다듬은 각이다.

손끝을 맡아 올려
가볍게 튕기는 이 가락은
셈법이 다다르지 않는
가장 높은음자리

지금 단전을 차고 오르는
너의 날숨이
이제 막
이름 부여 받은 이에
들숨으로 호흡 되는 순간이다.

- 자작시 <겨레> -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과거의 숨을 빌려와 현재를 호흡하는 사람들이 있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팔았다지? 요즘에도 김선달의 후손들이 도처에서 물장사로 째짤한 수익을 보고 있다. 하지만 김선달보다 더 장사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박물관 사람들이다. 봉이 김선달이야 강물을 퍼서 팔았지만 박물관 사람들은 과거를 퍼다 판다. 사실 판다는 어감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나 생각의 틀을 조금 비틀면 그다지 불쾌할 것 같지 않아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도 여전히 귀에 거슬린다면 비즈니스 정도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 어쨌거나 박물관은 과거 수 십 년전에서 수 백, 수 천 년전의 유물을 전시해 놓고 우리를 끌어들인다. 관람객은 실비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몇 시간 동안 숨 가쁘게 수 천 년을 거슬러갔다 헐떡이며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박물관 사람들은 세기의 거간꾼이다. 어느 유능한 거간꾼이 과거와 현재를 중개한단 말인가. 돈으로는 단 일초도 살 수 없는 게 실상이다. 현대 그들은 몇 푼으로 과거를 송두리째 우리에게 판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분한다. 사실상 우리네 삶이 팍팍하고 고되다 여기는 것도 이 시간의 분류와 무관하지 않다. 너도 나도 미래를 지향하는데, 이 미래라는 것이 결국은 현재로 다가오는 것이니 엄밀히 말해 시간은 과거와 현재만이 존재한다. 미래는 현재를 뛰어 넘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는 분명 현재와 연속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살아 온 시간들은 과거와의 연장선에 있어 현재와 서로 공존한다.

박물관에는 우리들의 조상,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 온 시간이 있다. 그들의 질박한 웃음이 토기에 숨어 있고 호탕한 기개가 칠지도에 새겨 있으며 절제된 삶은 백자항아리에, 숨결 고른 송고함은 금동대향로에 향내로 배여 있다. 박물관 사람들에게 과거를 송두리째 앗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들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니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낚아채서 팔지도 모를 일이다. 잠겨있던 시간을 끌어 올리고, 때 묻은 먼지를 털어내어 우리에게 옛제왕의 근엄한 모습을 보여준다. 귀족의 고고함을 곧추 세우는가 하면 귀를 찌르는 장군의 호령으로 오금을 저리게도 한다. 또 문인들의 절개를 꺼내 나태해지는 우리들을 바로 세운다.

그들은 우리에게 시간을 팔고 공간도 판다. 애써 축지법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면 신라의 땅이든 가야의 땅이든 밟게 한다. 고구려나 발해에도 기꺼이 데려다 준다. 게다가 그곳에서 생활하던 사람들과의 교류도 주선한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교제를 알선해 주고 그저 적당한 수수료를 요구 할 뿐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당대의 상인을 만나 고객을 다루는 방법이나 물건을 고르는 안목, 또는 요즘 트렌드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정치가는 군주나 삼정승 육판서들과 강론을 퍼서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토론해도 좋다. 운이 좋으면 유능한 군주의 통치 비법을 하사받는 성은을 입을지도 모른다. 때때로 연회에 초대되어 지친 정서를 위로 받는 호사도 누려본다. 학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비를 만나 인간의 참살이와 후회 없는 삶에 대해 배운다면 각박하고 건조한 삶에 윤기가 돌지 않을까 싶다. 문인이라면 어떨까? 연암이든 다산이든 좋아하는 문인들을 찾아가 술 한 잔 나누며 소설 주인공을 추천 받아도 좋고 역사물의 고증을 들어도 좋다. 경치 좋은 정자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머리를 틀어 올린 기생과 눈 마주치며 흐늘흐늘한 시 한 수 읊조리면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더욱이 예술가라면 박물관은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교재요 실습장이다. 고구려의 선과 백제의 빛, 신라의 태와 고려의 색, 그리고 조선의 혼을 작품 속에 현대적 감각으로 옮긴다면 21세기의 걸작들이 수없이 쏟아지고도 남을 것이다.

— 거대한 불상 앞에서는 종교가 무엇이든 개의치 않는다. 다만 백성을 계몽하고 욕망을 잠재우는 말씀만 귀담아 들으면 그만이다. 탕화 속에서 자신을 닮은 보살을 찾는 것도 재미있을 터이니 잠시 종교를 초월해보자. 흑여 탐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미증유의 실체를 당신이 찾아낸다면 더없는 행운이다. 그래그래 어찌 그리 인생을 모범적으로만 살 수 있겠는가. 가끔은 세기의 탕아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호색 짙은 과거사를 듣고 객쩍은 농에 빠져드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다리에 힘을 빼고 사대문 네거리를 흐느적거리며 걷는다 해서 크게 탓할 게 뭐 있겠는가.

— 고고한 백자 항아리에 술을 담거나 꽃을 꽂거나 하등 상관없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담으면 그만이지 꿀을 담아서 귀하고 간장을 담아서 천하지는 않다.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다면 모두가 가치 있는 우리의 보물이다. 귀천의 구분은 현대인들의 욕망으로 가른 기준일 뿐이다. 청자매병이 가치 있고 사금파리가 가치 없다 하겠는가. 고관대작의 장식장 위에 폼만 재는 청자매병보다 주막에서 이리저리 부딪치며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이가 빠지고 금이 간 대접이 더 귀하지 않을까. 화려한 금관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 없는 것이 바로 서민들의 발을 감싸주었던 누런 면 버선이다. 가난한 백성의 발을 감싸 추위를 견디고 생명을 보전케 하여 민족을 잇게 했다면 그것이 더 빛나는 우리의 국보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박물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겉보다 속을 보는 지혜의 눈을 파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아하, 이제는 눈까지 판다.

— 마음 한 자락 기댈 곳 없이 허하고 실타래처럼 생각의 끈들이 엉켜 더는 방법이 없을 때, 박물관이 제공하는 타임머신에 몸을 실어보라. 누가 아는가. 그곳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다니던 바로 그 답이 있을지 말이다. 작렬하는 여름, 박물관 사람들의 숨소리가 현대식 솟대 위에 둥글게 포물선을 긋는 늦은 오후이다. 🍷





엄마는 박물관이다.

지난 달 박물관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웬만한 인내심이 아니면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좀 끈질긴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1980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회 강의를 30년째 듣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15 명이 푹푹 뭉쳐 한결같은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글 하영남 _ 편집회원

_ 박물관회에서 그들의 정성을 치하하는 파티를 마련했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할 세월이니 어찌 감회가 남다르지 않겠는가. 오래된 스승과 제자, 그리고 이들을 지켜본 직원들 모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으리라. 늘 강단 높은 곳에 서있던 스승이 오늘은 제자와 한 테이블에 앉았다.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들 사이에서 사실 누가 스승이고 제자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 다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의 만남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거창한 식순대신 오래된 제자 한명씩을 호명해 상패와 축하 말을 전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 당시 강의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행운인데 30년이나 건강이 허락했으니 말입니다. 박물관 강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81년 강좌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한동안 청강생으로 강의를 듣고 가끔 답사에 따라 다니곤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유창종 회장이 말문을 열었다. “우리 문화계에 일조를 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서양미술이다 보니 제가 강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늘 언니(김리나 교수)를 부러워했지요.” 김영나 박물관장도 칭찬과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리고 이견무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들에게 찬란한 훈장을 수여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가 박물관에 근무한 지 30년 만에 박물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박물관장이 되는 겁니다. 명예박물관장 말입니다. 충분히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긴 세월을 함께 한 사람들이니 쌓인 얘기도 녹녹치 않을 것이다. 박물관은 그들 인생에 어떤 변화를 남겼을까? 파티에서 못다한 얘기를 듣고 싶어 그들을 다시 초청했다. 까마득한 선배님에게 三十年知己 만드는 비법을 한 수 배울까 하고, 질문을 던지기가 무섭게 중구난방으로 대답이 돌아온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 내 일 네 일이 따로 없고 모두 우리의 일이 된 사이인가 보다. 분명 개별 질문인데 늘 단체 대답이다.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은 우리들이 박물관에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해 계획을 세울 때 맨 먼저 박물관 강좌를 고려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 다른 일은 양보하는 거지요. 가족여행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 친구는 수술 날짜까지 조정하기도 했답니다. 재작년인가 그 과목이 인기 강좌여서 선착순 마감 될까봐 새벽에 콜택시 타고 온 적도 있어요. 강의 제목 보다는 우리가 함께 한다는데 의의를 둡니다. 오래 듣다보니 두루 섭렵이 되고 때로 같은 과목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나름 새롭습니다. 저걸 들었는지 까마득할 때도 있고 그새 높아진 안목이 뿌듯하기도 하지요.”

박물관 강좌를 들어서 좋은 점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어떤 모임에서도 지각을 하지 않는단다. 초창기 시절에는 강의가 시작 되면 안에서 문을 잠궈 버렸다고 한다. 쉬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니 자연 지각생이 드물었다. 설사 열렸다 해도 차마 들어오지 못했는데 요즘 수강생들은 좀 뻔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중



강 때 노트 검사가 있었다. 열심히 듣지 않으면 받아 쓸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학구적으로 변할 수밖에. 또 하나의 장점은 필기를 자주 하다 보니 글쓰기도 빨라지고 순발력이 생기더라. 무엇보다 기쁜 일은 결혼과 더불어 존재감이 없어진 내 이름을 찾게 된 일이다. 누구의 어머니 아내가 아닌 온전한 나를 박물관에서 재발견 했다고, 15명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처음 강의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용어가 낯설고 어려웠는데, 두세 번 반복해서 듣다보니 핵심이 보이더라고요. 수업 후에는 복습 삼아 박물관 관람을 같이 했습니다. 좋은 전시도 놓치지 않았지요. 국내외 답사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 저번 고려불화전을 다섯 번이나 보았습니다. 박물관 공부에 사고영역을 확장시켜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이 풍성하게 꽃필 수 있도록 박물관이 포용력을 길러준 셈이지요.”

“학구적인 엄마를 둔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남편과 아이들의 지지가 없었으면 이리 긴 시간을 박물관 공부에 매진하지 못했을 거라고 한다. 특별히 권유하지 않았는데 자식들 중에 사학이나 미술 같은 문화관련 전공자가 많단다. 지금도 어디서 박물관 관련 뉴스가 들리기라도 하면 곧잘 뛰어와 알려 준단다. 박물관 직원도 아닌데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박물관이다’라고 각인된 모양이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말해 달라고 하자 이들의 얘기는 어느 새 경복궁 시절로 돌아간다. 우리 회가 만들어지기까지 누구보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최순우 전 관장의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분들을 만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니 그들이 부럽기만 하다. 경복궁 안의 다원이라는 추억 속 찻집으로 들어간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 꽃을 피운다. 마치 사춘기시절로 돌아간 소녀들처럼 수다가 길어진다. 추억이 그들을 빛나게 하는 것일까? 김금옥·김성자·김인순·김정호·김혜련·민숙자·박순자·박영완·유명자·윤석희·윤정희·이지현·최신자·한정애·홍원복, 그들의 눈빛이 참 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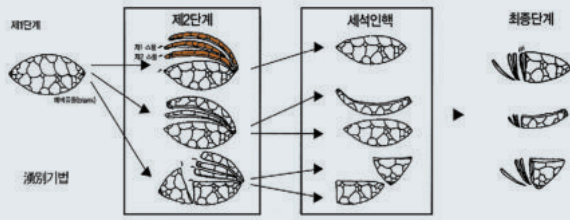
서일본지역에 있어 湧別기법의 계통 - 恩原가설을 중심으로

글 장용준 _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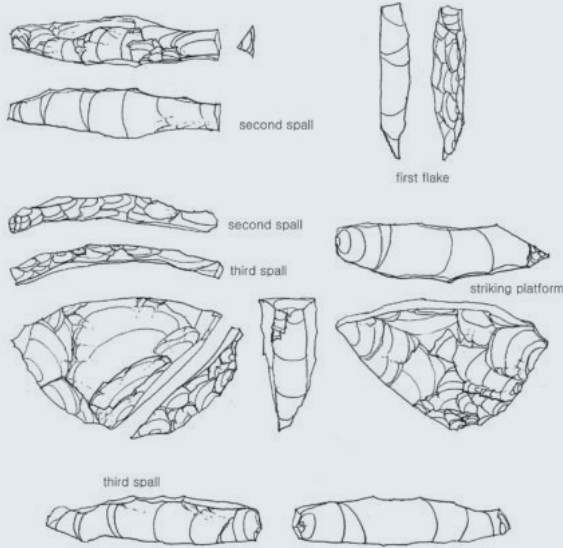
본 논문은 2010년도에 일본고고학회에서 발행된 『日本考古學』 제30호에 게재된 논문이다. 구석기시대의 연구는 한반도에 언제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하였는지, 빙하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남았는지 알기 위한 것이다. 그 중 현생인류가 살았던 시기인 후기구석기시대(4~1만년 전)의 연구는 전기와 중기 구석기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한반도와 일본의 구석기시대 교류는 전기와 중기 구석기시대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발견된 14,000여개라는 그 많은 후기구석기 유적 중에서 후기 이전 시기의 유적이거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지역의 교류나 접촉은 후기구석기시대에 처음으로 확인되며, 현생인류의 이동경로와 관련하여 고고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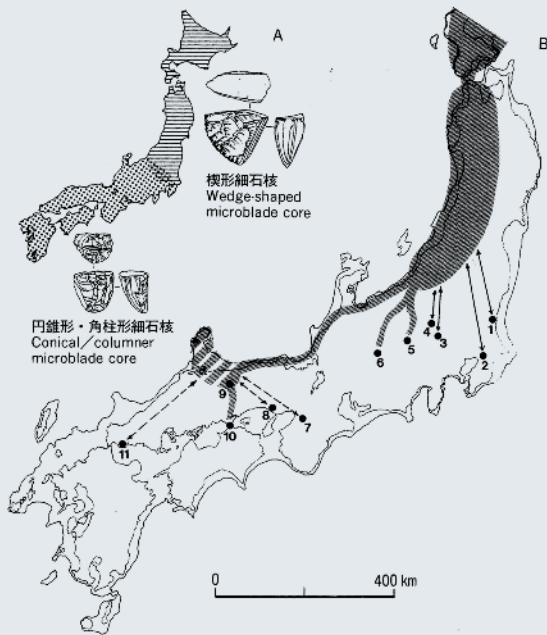
후기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석기 제작기법으로 석인(石刃, 돌날)기법과 세석인(細石刃, 좀돌날)기법이 있다. 세석인기법은 약 2.5만년 전 이후부터 한반도에서 사용되었으며 제주 고산리유적처럼 신석기시대까지 사용되었다. 무엇보다 자그마한 세석인을 활용하여 결합식(조합식) 창을 만들 수 있었기에 수렵채집생활을 하였던 후기구석기시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석기였다. 이러한 세석인을 만드는 여러 기법 중 동북아시아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유우베츠(湧別)기법이다(그림 1).



01 유우베츠 기법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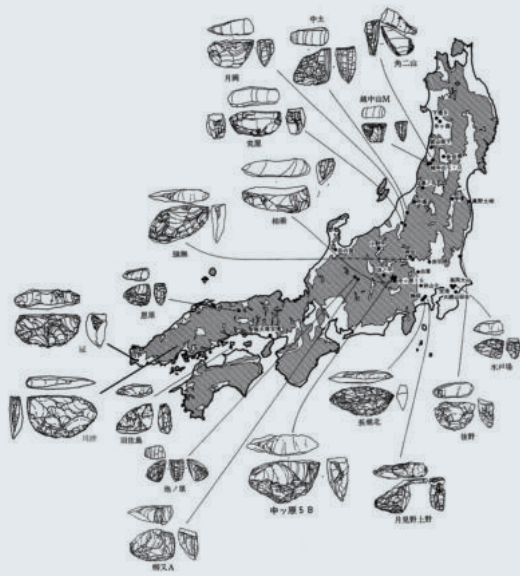
02 수양개 유적의 유우베츠 기법



03 온바라가설과 유우베츠 기법의 이동경로

이 기법은 일본 북해도지역의 유우베츠(湧別) 강 주변에 분포하는 유적군의 이름에서 비롯된 세석인(좀돌날)기법의 한 종류이다. 특히 세석인을 떼어내기 위해 타원형으로 다듬어진 예비소재를 사용해 때림면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법이 사용된 시기는 2~1.5만년 전 무렵이다. 한국, 러시아, 중국 북부, 일본에 널리 분포하고, 심지어 베링해협을 건너 알래스카까지도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양개(그림 2), 호평동, 신북, 집현, 월성동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지역(혼슈지역)의 세석인(좀돌날)기법 중에는 삭편계(削片系) 또는 북방계 세석인기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유우베츠기법이 한반도가 아닌 북해도를 통해 전래·확산되었다는 ‘온바라(恩原)가설’이라는 유명한 가설이 있다(그림 3). 서부 일부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일본 오카야마(岡山)현의 온바라(恩原)유적이고, 여기서 출토된 유물의 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 온바라가설이다.

이것은 북해도에 살고 있던 유우베츠관련 집단이 빙하기 중 츠가루(津軽)해협을 건너 혼슈(本州)지역으로 유입되었고, 그 후 일본 내륙지역으로 확산되어 서일본지역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그림 4). 그동안 이 가설은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거의 정설처럼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그로 인해 한반도와 서일본지역의 교류는 없었으며, 관련유물로는 규슈(九州)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슴베찌르개(박편첨두기) 정도에 불과하였다. 결국 약 2~1.5만년 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국과 서일본지역의 문화 교류의 양상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두 나라의 후기구석기시대에 대한 연구 및 교류를 파악하는데 있어 稻田孝司의 온바라가설이 매우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04 일본 혼슈지역의 유우베츠관련 유물의 분포

그러나 이 가설은 한국(한반도)의 최신 연구 성과나 자료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혼슈지역의 유우베츠관련 유적의 연대차이와 분포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온바라가설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이 가설의 토대가 된 여러 조건을 다시 검토하였다. 특히 현생인류가 서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일본 동북지방의 혈암을 가지고 온바라유적에 반입시켰다는 점(그림 5), 일본 규슈지역에 유우베츠기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새기개 중 아라야형 새기개와 카쿠니아마형 밀개가 확인되는 점(그림 6), 북해도와 일본 관동지방에 유우베츠기법이 확인되는 점(그림 3·4) 등에 대한 그의 주장을 비교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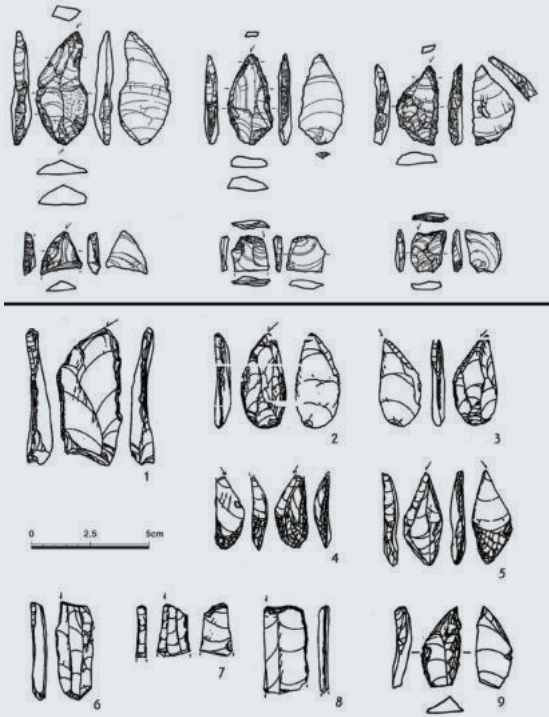
05 온바라유적의 동북지역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주장되었던 혈암제 석기

그 결과, 서일본지역의 유우베츠관련 유적들 중에는 동부 지역의 유우베츠관련 유물과는 기술적으로나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다. 특히 중간연결고리가 되는 혼슈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에서 유우베츠기법과 관련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지역적인 단절양상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4). 혈암의 원산지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결과가 결여되어 있고, 혈암은 온바라유적의 주변에서 우연히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흑요석의 교류양상을 보더라도 하나의 흑요석이 500km가 넘어 발견된 예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에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혈암이 온바라 유적에 반입되었다고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였다. 아라야형 새기개 역시 전형적인 형식이 아니었고 유사한 형식의 석기가 한반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그림 7).



06 온바라유적의 유우베츠 관련 유물
(상단 두 번째 카쿠니아마 밀개, 하단 유우베츠관련 유물)

따라서 일본 서부 지역은 한반도의 후기구석기인들에 의해 약 1.8~1.5만년 전에 유우베츠기법을 가진 세석인집단이 건너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북해도지역을 통해 서일본 지역에 세석인문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온바라가설과는 정반



07 대구 월성동유적과 온바라유적의 새기개 비교

대의 결과였다. 또한 혼슈의 서부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우베츠기법의 연대가 동부지역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울러 동부 일본 지역의 유우베츠기법이 1.5~1.2만년 전 이후의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우베츠관련 유물의 기원도 오히려 북해도가 아닌 한반도에서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이로써 유우베츠기법이 북해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통해서도 일본으로 유입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후기구석기시대에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가 스페찌르개뿐만 아니라 세석인기법을 지닌 집단(현생인류)도 일본 구석기문화의 성립과 기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한창균 _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이 논문은 온바라2 유적(恩原2遺跡)에서 출토된 세석인석기군이 홋카이도와 혼슈 지역을 걸쳐 서일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한 이나다 교수의 가설을 검토하여, 서일본에 출현하는 유우베츠기법(湧別技法)은 한국과 계통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성과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 세석인석기군의 교류 및 전파 관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강승 _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일본 후기구석기시대에 유행한 세석인석기군 문화흐름에 대하여 북해도에서 혼슈를 거쳐 서일본까지 확산되었다는 은원가설에 대하여 적어도 서일본지역에는 한반도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 기법을 가진 유적이 북해도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서일본과 중간지점에서는 이 기법을 가진 유적이나 기법이 나오지 않는 점과 동북지방의 혈암이 나오지 않는 점을 들어 지역적으로 가깝고 해류의 흐름을 고려하여 한반도에서 전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석기의 제작기법과 기술, 석재의 분포 등 다양한 측면과 방법을 통하여 논지를 치밀하게 전개하였다. 한반도와 일본에 걸친 구석기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여 우수한 결론을 무리없이 이끌어낸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서거 400주년 기념

낙파 이경윤과 17세기 조선의 회화



(송단보월도) 전 이경윤, 비단에 색
소나무 아래에서 달을 바라보며

조선중기 대표화가 이경윤이 서거 400주년을 맞았다. 그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동생 이영윤, 아들 이징 등 일가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분방한 필묵법, 거친 윤곽선, 흑백의 명암대조가 강조된 산수와 더불어 인물을 크게 부각시키는 등 전형적인 절파화풍을 보여준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담대한 색감에서 왕족의 고상함을 느낄 수 있다. 서명과 도장이 없어 그가 그린 것으로 전칭되는 작품이 대부분이지만 종실화가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 金正泰
理 事 | 金英那 金寧慈 金信韓 朴仙卿
成弼鎬 申聖秀 申硯均 申憲澈
尹碩敏 尹在倫 鄭明勳 池健吉
洪政旭
監 事 | 金義炯 鄭建海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품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역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천마회원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하나은행 金正泰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은관회원

柳昌宗 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대표
成弼鎬 광성기업대표
徐載亮 국립중앙박물관회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회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庚園 광제사 주지
南秀淨 (주)선앳푸드 대표
許榕秀 (주)GS홀딩스 전무
朴殷寬 (주)시몬드 회장

청자회원

都炯泰 깎리리현대 대표
金芝延 (주)컨셉 대표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최철원 M&M(주) 사장
洪政旭 국회의원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珮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金信韓 대성산업 전무
趙顯相 효성그룹 전무
許正錫 일진홀딩스(주) 대표
李宇鉉 OCI 부사장
金性完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金榮秀 변호사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起雄 열화당 대표
辛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炳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載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서양화가
한국도로공사 柳徹浩
玄智皓 (주)화승 부회장
金南延 동훈디앤아이 대표
金寧慈 (재)예을 이사장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梁汰會 (주)비상교육 대표
尹在倫 서울대학교 교수
丁恩美 종로편입아카데미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崔惠玉 강좌 수료생
洪錫肇 보광훼미리마트 회장
洪誠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崔世勳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金承謙 (주)서릉통상 전무
朴世昌 금호타이어 전무
崔杜準 (주)동남유화 대표이사
李海珍 NHN(주) 이사회의를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李善眞 목금도갤러리 관장
洋賢財團
薛允碩 대한전선 부회장

李英純 한국미술협회회원
朴正遠 재미교포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金載烈 제일모직 사장
金仁順 한국고미술사기연구소
梁洪碩 대신증권(주) 부사장
朴禎原 두산 산업차량 부사장
朴知原 두산중공업 사장
曹在顯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曹榮美 (주)KPE 전무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兌炫 성신양회(주) 부사장
Joseph Bae KKR Asia 대표
具本商 LIG 넥스원(주) 부회장
朴善正 GLMI 대표
金裕錫 행남자기 부사장
咸泳俊 (주)오투기 회장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高基瑛 (주)금비 사장
尹賢慶 동화약품 팀장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崔仁善 회원
吳勝敏 동일산업(주) 전무
許允秀 (주)ALTO(주)ALITEK 부사장
俞承熹 코리아나화장박물관 부관장
李宰旭 (주)대주기공 사장
李萬圭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趙希卿 광주요그룹 이사
朴宣注 영은미술관장
尹寬 BlueRun Ventures 대표
李蓮花 경신고속 감사
林鍾勳 한미약품 상무이사
柳智勳 영남제분 부사장
李濬宇 흥아해운 상무
楊仁集 진로제팬 대표
尹勝鉉 조명디자이너 대표
吳治勳 대한제강 부사장
李學俊 서울옥션 대표
李芝衡 변호사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英姬 강좌 수료생

